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9 권 26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129)	봉헌 (210)	성체 (158)	파견 (244)
---------	----------	----------	----------	----------

제1독서 | 사도 15,1-2.22-29

화답송 | 시편 67(66),2-3.5.6과 8(◎ 4 참조)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2독서 | 묵시 21,10-14.22-23<또는 22,12-14.16-17.20>

복음환호송 | 요한 14,23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음 | 요한 14,23ㄴ-29<또는 17,20-26>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5/19	이 마틸다	이 요한	박 다니엘
5/26	이 그레이스	이 요한	박 다니엘
6/2	유 요한	이 요한	박 다니엘
6/9	이 마틸다	이 요한	박 다니엘

영어독서: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200	\$85	\$10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4/27	김 마론/ 김 헬레나	6/1	이 요한/ 이 마틸다
5/4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6/8	유 요한/ 유 마리아
5/11	손 아놀드/ 손 쟈마	6/15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5/18	이 글라라/ 장 글라라	6/22	홍 마르코/ 홍 아녜스
5/25	박 벨라데타/ 정 루시아	6/29	김 요아킴/ 고 안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 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성체조배는 6 월 6 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두번째 일요일 오후 7 시 30 분

임원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원회의는 오늘(5 월 19 일) 입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수목요일 오후 8:00

기도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6351 Aker Rd. #7, Bakersfield. CA 93313

성경공부: 주일미사 후 친교실에서 (셋째 주 제외)

매주 미사 후 코린토 후서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앞으로의 나

-곽윤기 스테파노 | 쇼트트랙선수-

아직 은퇴를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함께 운동을 시작했던 동료들과 후배들이 은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게도 언젠가 다가올 일이구나’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글을 쓰면서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상화 선수의 은퇴로 ‘늘 함께하던 동료가 은퇴하니까 기분이 어때요?’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게도 멀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질문은 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지요.

은퇴를 생각하기 전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내가 스케이트 선수가 아니었다면, 그랬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내가 되었을까?’ 이런저런 상상과 생각을 하던 중 책상 앞에 있는 십자가에 눈이 갔습니다. ‘만약 내가 운동을 하지 않았어도 신앙생활을 했을까? 나의 신앙심이 더 깊어질 수 있었을까? 평소 가족에게 부담감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했던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운동을 하게 된 것이나 운동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선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운동선수이기는 하지만 달리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러닝 동호회’나 ‘자전거 동호회’에 함께 할 기회가 생기면서 지루하고 힘들기만 했던 운동이 새롭게 느껴졌고, 매일매일 지루하게 타던 스케이트가 다시 재미 있어지는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일 얼음 위를 달리고 싶어 하던 어린 시절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조금만 더 일찍 알고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운동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제겐 신앙도 늘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지친 마음을 위로 받을 수 있는데, 왜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일까?’ 하고 말이죠.

선수 생활 막바지에 들어선 저로서는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이 모든 시간과 과정들로 인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제부터 더 행복하고 더 즐겁게, 운동선수로서 신앙인으로서 살고 싶습니다.

오늘 누려야 할 행복함과 즐거움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답답할 때는 하느님처럼 넓은 하늘을 보면서 한 박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는 게 어떨까요? 오래 살아본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는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복음묵상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요한복음 : 14-27)